

“불교와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관한 논평

김 순 금

(원광대학교)

불교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이란 주제는 불교의 사상을 심성교육에 적용시킨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정호 교수(이하 발표자로 약칭)는 본 주제를 일반적인 심성교육의 의미를 서두로 하여 불교심성교육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심성 그리고 청소년 심성교육에서의 불교의 역할로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이면서도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우선 발표자는 “불교에서 바람직한 심성을 갖춘 사람의 특성은 보편적인 이상적 인간상 혹은 성숙인격의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한 심성을 위한 불교에서의 교육을 위해서 “편의상 원시 및 불교근본 사상의 기초를 두고”설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인다. “나중에 발달한 불교사상에서 나타난 가르침과 방법론들이 초기불교의 그것들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표자 논문의 본론 요지에 해당되는 주제인 불교가 청소년 심성교육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이러한 원시 및 근본불교의 수행관에 맞추어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논평자는 이러한 관점이 본 논문의 완성도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원시 및 근본불교의 수행관인 팔정도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올바르게 하여 자기와 세계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체험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바른 삶이 생활 속에서 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실천적 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원시 및 근본불교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근

본원리 또는 인간의 생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이론(解)은 그에 따른 실천(行)을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가 “편의상 원시 및 근본불교에 기초를 두고” 전개시켰다고 했는데 원시 및 근본불교의 수행은 사념처(四念處), 사정단(四正斷), 사신족(四神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 등의 삼십칠 조도품(三十七助道品)으로써 팔정도는 이 가운데 들어 있다. 이것은 수행의 궁극 목적이 생사괴로움의 근본적 소멸에 있다. 그리고 사성제의 팔정도는 선악의 근저에 있는 정사(正邪)를 문제로 대두시켜, 정사의 선택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해탈의 길이다. 이에 반하여 대승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보살의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중기 대승사상에 오면 여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열반경)고 한다. 즉 ‘생사즉열반, 번뇌즉보제(生死即涅槃, 煩惱即菩提)’로써 생사윤회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 된다고 한다. 종교에서 수행방식이란 곧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당위성으로 볼 때 근본 및 원시불교에서 팔정도는 다시는 이 세계에 나오지 않는 아라한과(阿羅漢果) 중득 즉 자신의 해탈에 이상을 두고 있고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적 이념에 따라서 궁극적 추구점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정화 및 구원이라는 양극점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발표자가 제기한 불교에서의 바람직한 심성을 갖춘 사람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인 이상적 인간상 혹은 성숙인격의 특성”이라는 단서에서도 자기정화와 더불어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이 성숙인격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불교의 심성교육은 이러한(현실고관)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통해 바르게 봄으로서 바른 심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팔정도를 들었다. 우리가 더러운 물을 맑히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더러운 물 자체를 약품처리 한다든지 해서 맑히는 방법과 더러운 물 위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희석시킴으로서 맑히는 방법 그리고 더러운 물을 쏟아내고 새 물을 채우는 방법 등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정화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하게 하는 자기탁마적인 방법과 실상 자체를

알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또한 끊임없이 이타행을 행하면서 자기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자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자존적인 방법이라면 후자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가 자존적이라서 성취율이 낮다면 후자는 더불어 하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육바라밀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보살이 사회와 중생을 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발표자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에서의 불교의 역할에서 발표자는 삼법인과 팔정도가 어느만큼 현대인에게 맞게 수기설법적(隨機說法的)으로 혹은 응병여약식(應病與藥式)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불교의 팔만사천 대장경이 이미 수기설법 응병여약식으로 설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취해 쓰지 않음을 지금까지 예가 그 한 예라고 하겠다.